

# 청년 · 신중년 일자리 '초집중'

### 익산형 일자리, 식품산업 일자리생태계 조성 본격 시동... 취창업 일자리 인프라 '든든'

익산시가 경기침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로 '경제허리'인 청년부터 신중년 일자리 마련에 초집중한다.

시는 올부터 익산형 일자리 사업에 적극 몰입해 식품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익산형 일자리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꾼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상반기 정부 부처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익산형 일자리는 허립그룹(허립푸드, 허립산업, HS푸드)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20개), 지역농가(농협, 농민회)의 협력을 통해 총 3,625억 원 투자, 575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일

자리 창출사업이다. 식품기업 고용 창출 뿐만 아니라 농가계약 재배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 경제사회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정책의 허브인 익산 청년시청도 올해부터 풀가동된다. 전국 최초로 지난 12월 개칭한 익산 청년시청은 매일 정기 취업박람회 개최 등 취업부터 창업, 주거 문제까지 아우르는 청년정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윈윈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 기업을 위해 맞춤형 창업 인큐베이팅에 힘을 쏟는다. 올해 민관협력 위드코얼 청년 창업지원사업으로 20개팀 10억원 예산

을 투입해 시제품 개발, 창업 인프라, 창업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까지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등 경제사회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창업자 시제품 제작과 창업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익산형 MVP', 지역의 관광자원 및 문화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익산형 로컬 크리에이터' 등 창업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한다.

또한 4060세대를 위한 신중년일자리 센터를 올해 3월 개관해 경제동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중년층 취업 특성을 고려해 이직 및 전직 지원 전문 상담인력을 상시 배치하고 생애주기별 교육과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센터)가 13일부터 신속 건물에서 임시 개장한다고 밝혔다.

## 수산물종합센터 임시개장

### 군산시, 설 명절 대비 13일부터 4월까지 임시영업 후 정규 개장

군산시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센터)가 13일부터 신속 건물에서 임시 개장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08년 10월 개장해 수산물 전통시장으로서 선어, 활어, 건어 판매 및 수산물 회집식당 영업을 해왔으나 20여년 된 노후화된 시설로 안전성이 떨어져 수산물 판매 점포, 휴식공간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을 위해 2020년 5월 공사를 착공했다.

시는 당초 2022년 12월말 신속건물 공사완료 및 기존 센터 철거부지에 임시주차장 조성해 임시 영업개장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자재수급 지연과 폭설로 공사가 지연돼 설 명절을 앞두고 신속 건물에서 금년 4월경 정규 개장 전까지 임시 영업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존 건어동 주변 광장부지 포장공사가 미준공에 따라 신속 건물 1층에서 활어, 선어, 건어를 일부 판매

할 예정이다.

임시개장 기간 동안 건어동 등 주변 부지 포장공사가 동시 진행되며, 주차장과 공원 윗터 등 부대시설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규개장 전 잔여 점포는 군산 시민 대상으로 오는 2월경까지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개모집 공고시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4월까지 시설이 준공되면 현대식 수산물 복합시장으로서 유통센터가 자리 잡고 수산물가공거점단지와의 해양동 수협 위관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부가가치 및 활성화를 창출할 계획이다.

박동래 수산진흥과장은 "공사 일정이 지연돼 부득이하게 제한적인 임시개장을 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들에게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군산=김관근 기자

## 익산시, 보건의료체계 고도화로 시민건강 지킨다

### 권역별 지역보건서비스 체계구축... 공공보건 고유영역 강화

익산시는 위드코로나 정책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보건소의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아웃소싱을 통한 민간 감염병대응체계와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이원화해 공공보건 고유 영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핵심역할을 하게 되는 감염병대응팀을 2개에서 3개로 확대했다. 선별진료소와 역학조사 등에 집중됐던 직원들의 업무를 민간분부와 전담인력으로 대체해 보건소 고유의 업무추진 정상화에 나선다.

또한 도시에 집중되었던 공공의료자원을 의료취약지역으로 확대시킬 예

정이다. 지난해 7월 합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로 북부권을 아우르는 권역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송학동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해 서부권 지역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을 추진한다. 시는 1가구 1인 심폐소생술 능력배양을 목표로 보건소에 상설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더 나아가 찾아가는 읍·면지역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기관도 14개 보건지소로 확대·운영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사전 연명의료제도는 19세 이상 성인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9,343명이 상담·등록해 전 시민의 3%가 참여했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지난해에는 시민들과 직원의 아낌없는 노력과 희생으로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고 다양한 보건사업 분야의 성과도 있었다"며 "올해는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3년도 들어 첫 회의인 제252회 임시회를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12일 열린 본회의에는 이·통장 등 시민 70여 명이 방청, 함께하는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광권 분쟁에 대해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군산문화지원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와 간담회 현장방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회의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은식 의원의 '군산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산시 해안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공공삼야 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있다.

12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신항 및 주변 관광권 분쟁 해결 촉구 결의안'과 윤신애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수상 태양광 1단계 사업 조속한 추진 촉구 결의안', 서은식 의원이 발의한 '군산 동산중학교 이전부지 활용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 기관에 송부했다.

김우민 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설경보, 강풍주의보와 함께 약 25m 이상의 폭설이 내려 재산 상황을 방불케함은 물론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이동시간 지체, 시내버스 지연 운행, 교통사고, 자영업자의 아우성 등 시민들의 민원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봉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고 전체적인 가로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결손된 가로수에 대한 조속한 보식 등 가로수 관리에 민전을 기할뿐 아니라 수종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함은 물론 가로수 보호와 연계한 전신주 등의 지중화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 익산시, 적립 3배효과 '저소득아동 디딤씨앗' 특위

익산시는 적립 3배 효과로 저소득층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 통장 가입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또는 기초수급아동이 보호자나 후원 등을 통해 저축하면 정부(지자체)가 1대2로 추가 매칭 지원해 사회진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매칭 최고 종자돈 한도 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월 최대10만 원까지 매칭 지원해 총 15만원 저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종자돈 3배 효과에 힘입어 지난해 디딤씨앗 통장 신규 가

입률이 직전년도인 2021년도 대비 10% 증가했다.

지난해 가입 대상자 932명 중 713명인 77%가 디딤씨앗 통장에 저축했으며 이는 2021년도 608명에 비해 104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또한 매칭 최고 한도 종자돈 5만원 저축자가 660명을 넘어선 지난해 가입자 대비 88%를 기록해 2021년 보다 11%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시는 저축저조아동 80여명에게 연간 3,200여만원 후원을 연계해 9,600여만원 지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군산시는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신청을 오는 16일부터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서 접수하면 된다.

군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말에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소음피해대책지역은 군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보상대상지역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대책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5,000원, 제3종은 월 3만원이며 지난 2022년도에는 2,199명에게 7억4,700여원의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결정해 지급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 군산시,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접수

군산시는 올해 2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의 사업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2023. 1. 16.)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재(휴)학생으로, 지원금액은 한 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20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잔액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3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교육지원과에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재(휴)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학생의 대출금 이자액을 확인해 5월 중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학자금 대출계좌로 지원금액을 상환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내역은 한국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교육지원과로 문의(063-454-2583)하면 된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